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23.(월) 13:00 < 10.24.(화) 조간 > 배포 2023. 10. 23.(월)

수소 버스, 제주에서 청정수소로 달린다

국내 최초의 청정수소 생산-운송-활용 전(全)주기 생태계가 제주도에서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 23.(월) 오후 1시 제주시 밭담 테마공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수소 버스 정식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산업부는 '20년부터 행원 수전해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현재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는 인근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매일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수소충전소로 운송하여 수소 버스와 수소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 앞으로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일일 수소 생산량을 최대 1t까지 늘려나갈 계획

이번 실증사업은 단순히 청정수소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주도는 '25년까지 수소충전소 5개소(현재 1개소), '30년까지 수소 버스 300대(현재 9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생태계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에서는 김범수 수소경제정책관 직무대행이 수소 버스 개통식에 참석하였다. 이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개최된 '2023 제주 국제(글로벌) 그린 수소 토론회(포럼)' 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수소 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수소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한서 (044-203-3970)
		담당자	사무관	최현상 (044-203-3973)
			사무관	최정옥 (044-203-39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